

제 156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戰前日本の 滿洲農業移民의 한 形態:天理村

강연자: 원춘메이(文春美)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助理研究員)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소속 원춘메이 연구원의 세미나가 4월 9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戰前日本の 滿洲農業移民의 한 形態: 天理村'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농업이민이 일어나게 된 배경, 둘째, 만주농업이민의 네 단계, 셋째, 텐리교의 적극적인 해외전도, 넷째, 만주 텐리무라에 관한 사항이었다. 원춘메이 연구원은 강의에 앞서 우선 만주농업이민 관련 자료는 민감한 역사적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한계와 종교와의 연관성에 의한 민감성으로 일본에서의 연구자료가 많지 않았기에 오늘의 발표 또한 표면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우선 국책으로서 농업이민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1918년 일본에서 정당정치가 시작되고, 1923년 관동대지진과 경제공황으로 일본은 전대미문의 불황을 맞이하고 있었고, 농가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세계열강의 반열에 올랐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모순과 부조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중운동이 두각되었지만 세계적 경제공황과 일본 내 정치 미숙으로 인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주로 농업이민정책이 추진되게 되었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원춘메이 연구원은 지적한다. 첫째로 농가가 불황을 겪게 되어 농업구조 청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 중국의 동북부를 거의 장악한 일본 안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민방안이 절충화되어 통합되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만주이민국책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사임하여 1932년 8월에 이 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만주농업이민을 네 단계로 살펴보면, 1932년부터 36년까지는 무장이민 시기, 1936년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1년까지 본격적 이민이 이루어진 시기, 1942-45년까지 이민 쇠퇴기, 마지막으로 46년부터 64년까지를 만주 이주민이 다시 일본 국내 개척지로 입주하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만주로 이민 갔던 27만 명의 사람 중에서 8만 명이 희생되고, 잔류고아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그리고 약 7만 5천명의 사람들이 홋카이도와 큐슈 등의 개척지로 입주하게 되었다.

텐리교는 나라현 텐리시를 본거지로 하고 있으며 종교가 창립된 것은 1838년이다. 신도수는 190만 명이며 인간 생명의 발상지의 중심을 "지바(ぢば)"라고 부르고 현재 텐리교 교회본부는 이 지바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만주 텐리무라 희생자의 추모비도 모셔두고 있으며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일본의 3대 신흥 종교 중 하나로서 특징은 빈농과 도시빈민 등의 신도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중구제를 설파하여 수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대 교주였던 나카야마 쇼우젠이 해외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에 텐리무라를 만들게 되었다.

텐리교는 "일본은 뿌리의 나라, 만형의 나라, 종가의 나라" 등 일본이 정신적으로 세계를 구제하는 나라라는 교리로 아시아 맹주론을 지지하였다. 또한 서구열강에 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황중심의 내셔널리즘이 가득하였다. 텐리무라는 지금의 하얼빈에 지어졌다. 하얼빈은 러시아가 만주를 횡단할 때 만들어진 도시로 동방의 유럽이라 불렸고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한 곳

이다. 일본인 3만 5천명 정도, 러시아인 2만 5천명이 거주하였으며 나카야마 쇼우젠이 이 비옥한 땅을 사들여 종교적 마을을 형성한 것이 텐리무라이다. 이민 쇠퇴기에 건립되었으며 약 1508명이 이주하였고, 전쟁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그후 일본 내 개척지에 입주시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었다. 그러나 텐리무라는 당시 소학교, 진료실, 영빈관 등 공공시설들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었다고 한다. 치안 문제를 가장 신경 썼는데 마을 외곽을 담으로 둘러싸고, 그 꼭대기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엄격한 순찰과 경비 체제를 갖추었다.

현재 텐리교에서는 텐리무라에 대하여, 의료, 교육 등의 면에서 현지 사회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의 국가권력, 특히 군과 결탁하여 전쟁에 협력한 것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춘메이 연구원은 이것은 자아반성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종교의 관여로 중국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였고 전쟁에 적극 동참한 책임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질의응답.

질문:

만주 지역에서 텐리교 외에 다른 종교도 종교적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같은 시도를 했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텐리교만 적극적으로 그랬던 것이라면 이에 대한 텐리교 교주만 특별히 메시지가 남아있는지 알고 싶다.

답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종교적 마을을 형성한 것은 텐리교 밖에 없다. 강연에서 지적하였듯이 2대 교주가 해외포교를 중요시하였고 이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들은 아주 많이 남겨져 있다.

질문:

텐리교의 교리가 당시 황국사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식민지 시절 경상도에서도 텐리교가 포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나 일반 시민들이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미끼로 텐리교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선에도 좋은 땅을 사들여서 포교를 하고자 하였는지, 우리나라 농민들과 텐리무라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답변:

조선에도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농업이민이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만주농업이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형식의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만주에서는 집단으로의 전도의 형태였기 때문에 다르다. 하지만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